

신라 선덕여왕과 영묘사

Queen Seondeok of Silla and Yeongmyosa Temple

저자 (Authors)	김선주 Kim, Sun-Joo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연구 71 , 2013.9, 281-316(36 pages)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71 , 2013.9, 281-316(36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학회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55327
APA Style	김선주 (2013). 신라 선덕여왕과 영묘사. 한국고대사연구, 71, 281-31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4 13:2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선덕여왕과 영묘사

김선주*

- I. 머리말
- II. 여왕 즉위와 정국 변화
- III. 영묘사의 묘당적 성격
- IV. 영묘사 창건과 왕권 안정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왕인 선덕왕이 여왕이라는 조건을 딛고 어떻게 정통성을 인정받으면서 통치 권력을 장악해 나갔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선덕왕은 여왕이라는 점 때문에 즉위과정이 순조롭지 않았으며 즉위 초에도 정통성이 위협받아 왕권이 불안정했다. 그러나 즉위 4년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고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통치 체제에서 변화상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그 계기로 당책봉과 함께 영묘사 완성을 주목하였다.

* 중앙대학교 강사

대표논저 : 2011 「신라 경덕왕대 삼모부인의 생애와 정치적 의미」 『역사학연구』 44 ; 2011 「신라의 건국신화와 알영」 『신라사학보』 23 ; 2010 「신라 선도성모 전승의 역사적 의미」 『사학연구』 99.

영모사는 사찰의 이름이 '신령을 모신 묘당'이라는 뜻을 가진 영모라는 점, 중대 성전 사원의 하나로 그 이름이 나타난다는 점, 시조릉으로 전승되고 있는 '오릉'과 인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라 왕실 조상의 신령을 모신 묘당으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신라의 건국시조와 관련된 묘당으로, 그 대상에는 시조왕인 혁거세뿐 아니라 시조비인 알영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여왕이었던 선덕왕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과 관련하여 여성인 '알영'을 보다 부각시키려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다.

선덕왕은 시조릉으로 알려진 오릉과 가까운 곳에 '성스러운 조상'으로 여겨진 건국시조인 혁거세와 알영을 모신 묘당으로서 기능을 가진 영모사를 창건하고, 이들 성스러운 선조, 특히 여성인 알영을 통해 여왕인 자신의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왕권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았다. 이 논문은 선덕왕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관심에서 왕으로서 통치권력을 어떻게 장악해 갔는지까지 이해를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신라의 시조 추승에 대한 이해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 보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 선덕왕, 여왕, 영모사, 알영, 오릉

I. 머리말

신라 제 27대 선덕왕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왕으로 즉위하였다. 그때까지 신라에서도 왕위는 남성들에게만 계승되어 온 상황이었다. 관등과 관직 또한 남성들에게 독점된 상황에서 여왕이라는 점만으로도 선덕왕의 즉위는 정통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정치권력의 안정을 위해서는 권위와 정통성 확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첫 여왕이었던 선덕왕이 여왕이라는 조건을 딛고 어떻게 정통성을 인정받으면서 통치 권력을 장악해 나갔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여기서는 최초의 여왕이었던 선덕왕의 통치 기반과 관련하여 영묘사를 주목하고자 한다. 영묘사는 선덕왕대 창건되었다. 왕실 차원에서 건립된 사원은 대부분 왕실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건립되고 존속되었다. 선덕왕대 건립된 영묘사 역시 선덕왕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더구나 영묘사는 선덕왕과 관련된 설화에서 주요 무대로 등장하고 있다. 영묘사를 배경으로 하는 지귀설화나 여근곡 설화는 모두 선덕왕의 통치자로서의 뛰어난 자질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는 영묘사가 선덕왕의 통치에 있어서 특정한 기능을 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지금까지 영묘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위치 비정을 중심으로 접근이 이루어졌다.¹⁾ 특히 신라 최초의 국가 사찰인 흥륜사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언급되었다. 흥륜사로 비정되었던 위치에서 ‘영묘’라는 명문이 있는 와전들이 출토되면서 흥륜사 위치 비정에 대한 의문과 함께 영묘사의 위치 문제가 논의된 것이다. 그 외에도 영묘사는 신라 중대 성전 사원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어 성전 사원에 대한 주제에서 영묘사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²⁾

-
- 1) 洪思俊, 1962 「新羅靈廟寺址의 推定」 『考古美術』 3-6호(通卷23); 박흥국, 1980 「경주 지방에서 출토된 문자명과」 『전국대학생학술연구발표논문집』 제5집, 고려대학교호국단; 김원주, 1983 「사적 제15호 흥륜사지는 영묘사지의 잘못」 『穿古』 51호, 신라문화동인회; 田中俊明, 1988 「慶州新羅廢寺考(1)」 『堺女子短期大學紀要』 23호, 堺女子短期大學; 金福順, 2002 「興輪寺와 七處伽藍」 『新羅文化』 20; 李根直, 2002 「신라 흥륜사 위치관련 기사 검토」 『新羅文化』 20; 박흥국, 2002 「瓦磚資料를 통한 靈廟寺址와 興輪寺址의 位置比定」 『新羅文化』 20, 2002.
- 2) 邊善雄, 1973 「皇龍寺 9層塔誌의 研究」 『國會圖書館報』 10-10; 濱田耕策, 1982 「新羅의 寺院成典と 皇龍寺의 歴史」 『研究年報』 2; 李泳鎬, 1983 「新羅中代 王室寺院의 官寺的 機能」 『한국사연구』 43; 蔡尙植, 1984 「新羅統一期の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釜山史學』 8; 李泳鎬, 1993 「新羅 成典寺院의 成立」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4;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영묘사를 선덕왕의 정통성과 권력 기반이라고 하는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왕의 즉위 초 정국 상황과 영묘사 낙성을 전후하여 정국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영묘사 창건의 정치적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영묘사의 사원적 성격을 접근하고자 한다. 나아가 영묘사가 최초의 여왕인 선덕왕의 정통성 확보와 권력 장악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왕이었던 선덕왕의 통치 기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신라의 시조 추승에 대한 이해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 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Ⅱ. 여왕 즉위와 정국 변화

632년 정월 진평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신라에서는 최초로 여왕이 탄생하였다. 진평왕의 뒤를 이어 딸인 선덕왕이 즉위한 것이다. 처음으로 발생한 여왕 즉위에 대해 『삼국사기』에서는 ‘진평왕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을,³⁾ 『삼국유사』에서는 ‘성골남자가 다했다’는 것을 내세웠다.⁴⁾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왕인 선덕왕이 즉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지금

尹善泰, 2000(a) 「新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韓國史研究』 108 ; 尹善泰, 2000(b) 「新羅 中代의 成典寺院과 國家儀禮 -大·中·小祀의 祭場과 관련하여-」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新羅 金石文의 現況과 課題-』 23 ; 黃尙周, 2005 「『三國史記』 記事와 寺址로 본 新羅 成典寺院의 數에 대한 疑問」 『新羅文化』 25 ; 박남수, 2012(a) 「眞殿寺院의 기원과 新羅 成典寺院의 성격」 『韓國思想史學』 41.

3)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善德王 卽位條.

4) 『三國遺史』 卷1, 紀異1 善德王知幾三事.

까지 신라의 골품제를 주목하여 왔다. 신라에서는 골품이 성별보다 우선되는 기준이며, 당시 성골 남자가 없는 비상적 상황에서 여왕 즉위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선덕왕이 즉위하였다고 본 것이다.⁵⁾

그렇지만 유례가 없었던 ‘여왕’ 즉위가 당시 신라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선덕왕을 후계왕으로 하는 구도는 이미 진평왕대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당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진평왕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칠숙과 석품의 난이 발생하는데 진평왕의 후계자 선정을 둘러싼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⁶⁾ 당시 진평왕은 즉위 53년으로 연로한 상태였을 것이므로 왕위 계승자 문제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⁷⁾ 주모자였던 칠숙이 신라 제2위의 관등인 ‘이찬’이었다는 점에서 진평왕대 후계자 선정과정에서 지배층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⁸⁾

‘여왕’ 즉위가 자연스럽게 인식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정황은 즉위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삼국사기』에서는 진평왕이 세상을 떠난 후 국민이 선덕왕을 추대하였다고 설명하였다.⁹⁾ 신라의 왕위 계승 과정에서 ‘국민’의 존재는 종종 나타난다. 박씨 왕계에서 석씨 왕계로 전환되는 첫 왕인 벌휴왕, 첫 김씨 왕인 미추왕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신라의 왕위 계승 과정에서 국민의 존

5) 鄭容淑, 1994 「新羅 善德女王的 정국동향과 毗曇의 亂」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一潮閣, p.239.

6) 丁仲煥, 1977 「毗曇·廉宗亂의 原因考-新羅政治社會의 轉換期에 관한 一試考」 『東亞論叢』 14, pp.8~10; 李鍾旭, 1980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pp.182~183; 金瑛河, 1988 「新羅 中古期の 政治過程試論」 『泰東古典研究』 4, p.24; 朴勇國, 2000 「善德王代初의 政治的 實狀」 『慶北史學』 23, p.258.

7) 朱甫噉, 1994 「毗曇의 亂과 善德王代 政治運營」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一潮閣, p.220.

8) 朴勇國, 2000 앞의 논문, p.258.

9)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第5 善德王 卽位條.

재가 언급된 경우는 왕위를 계승할 자가 뚜렷하지 않거나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는 세력이 있는 등 논란이 있을 때였다.¹⁰⁾ 선덕왕의 즉위에 ‘국인’이 등장했다는 것은 선덕왕 역시 ‘국인’의 추대라는 형식이 필요할 정도로 정통성이 취약한 것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선덕왕 즉위 초의 정국 역시 비상적인 체제로 운영되었다. 선덕왕이 즉위한 후 취했던 첫 정치적 행보는 大臣 을제로 하여금 국정을 총괄하게 하는 조치였다. 대신으로 표현된 을제에 대해서는 상대등으로 보기도 하는데,¹¹⁾ ‘국정을 총괄하게 했다’는 것은 국정의 권한 상당부분을 을제에게 위임하였음을 보여준다. 선덕왕이 왕이 되긴 하였지만 실질적인 정치 권력은 을제가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²⁾ ‘을제로 하여금 국정을 총괄’하게 하는 조처는 즉위초 선덕왕이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¹³⁾

즉위 과정이나 즉위 초에 보이는 이러한 정치 상황은 선덕왕이 여왕이었기 때문이었다. 혈통면에서는 가장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진평왕의 직계이

10) 崔在錫, 1983 「新羅王室의 王位繼承」 『歷史學報』 98, p.82 ; 辛鍾遠, 1987 「新羅五臺山事蹟과 聖德王의 卽位背景」 『崔永禧先生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탐구당, p.111 ; 辛鍾遠, 1996 「『三國遺事』 善德王知幾三事條의 몇가지 問題」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新羅와 狼山-』 17, p.43.

11) 田鳳德, 1968 「新羅最高官職 上大等論」 『韓國法制史研究』, p.323 ; 李基白, 1962 「上大等考」 『歷史學報』(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p129 재수록).

12) 을제의 국정총괄에 대해 여왕 즉위를 둘러싼 여왕지지파와 반대파 사이의 모종의 타협으로 이해하기도 하고(朱甫喞, 1994 앞의 논문, p.226 ; 鄭容淑, 1994 앞의 논문, p.245), 여왕의 약점을 보완해주기 위해 후견인으로 을제가 내정되었다고 보기도 있다(高慶錫, 1995 「毗曇의 亂의 성격 문제」 『韓國古代史論叢』 7, p.265 ; 李昞淑, 1999 「眞平王 末期의 政局과 善德王의 즉위」 『백산학보』 52, p.223).

13) 을제의 집정에 대해서 선덕왕이 옹립되기 전까지 과도정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辛鍾遠, 1996 앞의 논문, p.43).

지만 ‘딸’이라는 성별 문제는 섣덕왕의 정통성을 위협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섣덕왕은 후계자로 선정되는 과정으로부터 이찬을 비롯한 귀족들의 반대를 꺾어야 했고, 즉위시에도 ‘국인 추대’라고 하는 형식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으며, 즉위 후에도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왕’이라는 성별 문제로 인해 발생되었던 불안정한 왕권은 언제까지 지속되었을까? 섣덕왕은 재위기간 내내 ‘여왕’이라는 성별에 따른 왕권의 한계를 전혀 극복하지 못했을까?

섣덕왕은 즉위 이듬해인 2년 정월에 신궁 제사를 드리고 있다.¹⁴⁾ 신궁 제사는 신라에서 새로운 왕의 즉위를 알리는 동시에 신궁에 모셔진 신주에서 비롯되는 정통성을 확인하는 즉위의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위 의례는 군주가 군주로서의 공적인 권위를 체득하기 위해 필요한 의례이며 그 권위가 정당성을 가진 것임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¹⁵⁾ 섣덕왕 역시 신궁 제사를 통해 섣덕왕은 자신의 즉위를 대내외에 알리면서 선조로부터 계승되는 정통성이 자신에게 있음을 내세운 것이다.

또한 즉위 3년 정월에는 연호를 仁平으로 바꾸고 분황사를 완성하였다.¹⁶⁾ 자신의 연호로 개원했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치세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개원과 짝을 이루어 낙성된 분황사는 ‘향기로운 황제의 사찰’이라는 의미로 ‘향기로운 황제’는 바로 여왕인 섣덕왕을 가리키는 것이었다.¹⁷⁾ 분황사는 여왕인 섣덕왕의 치세가 시작되었음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개원과 ‘향기로운 황제의 사찰’ 낙성을 통해 여왕인

14)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 二年.

15)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p.84.

16)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 三年.

17) 南東信, 1999 「元曉와 芬皇寺 關係의 史的 推移」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芬皇寺의 諸照明-』 20, p.79.

18) 辛鍾遠, 1996 앞의 논문, p.63.

선덕왕의 치세가 시작되었음을 본격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는 가운데도 당시 선덕왕의 왕권이 안정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신궁제사 한 달 뒤인 2월에는 지진 기사가 나타나며, 그해 8월에는 백제의 서쪽 변경 침입 소식이 나타나고 있다.¹⁹⁾ 또한 연호 개원과 분황사 낙성이 있는 두 달 뒤에는 밤 크기만한 우박이 내렸다고 하였다.²⁰⁾ 고대사회에서 자연 재해는 왕과 관련하여 이해했다는 점에서²¹⁾ 당시 혼란스런 정국과 자연재해는 ‘여왕’의 즉위와 연관시켜 해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선덕왕 즉위 5년을 전후한 시점부터는 정국 변화가 감지된다. 즉 위 5년 봄 정월에 선덕왕은 이찬 수품을 상대등에 임명하고 있다. 귀족회의의 최고위인 상대등 임명은 대부분 왕의 교체와 같이 하고 있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사안으로 이해되었다.²²⁾ 수품을 상대등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국왕이 상대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다.²³⁾ 또한 상대등을 일반적으로 구귀족 세력으로 파악하여 수품이 상대등에 임명된 것을 신구 세력의 타협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해가 있다.²⁴⁾ 수품의 정치적 성격을 선덕왕과 대립되는 인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수품은 선덕왕과 이해관계를 같이 했던 인물로 보인다. 수품은 상

19)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 二年.

20) 辛鍾遠, 1996 앞의 논문, p.63.

21) 李熙德, 1980 「三國史記에 나타난 天災地變記事의 性格」 『東方學志』 23: 24.

22) 선덕왕대는 상대등 교체가 세 번 있었다. 과거 한 왕대에 한 명씩 임명되던 상대등이 선덕왕대 세 명이나 바뀌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동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李基白, 1964 「新羅 執事部の 成立」 『震檀學報』; 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p.152 재수록).

23) 丁仲煥, 1977 앞의 논문, pp.26~27.

24) 金瑛河, 1988 앞의 논문, p.26.

대등에 임명되기 전 해인 선덕왕 4년 10월에 용춘과 함께 선덕왕을 대신하여 지방 순무를 수행한 인물이다. 지방 순무를 왕을 대신하여 수행했다는 점이나, 같은 일을 했던 용춘이 진평왕 후반기 측근기구인 내성사신에 임명되었으며 선덕왕 후반기 황룡사 9층탑 건립에서 감군으로 총책임을 맡는 등 친선덕왕계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수품 역시 용춘과 같은 선덕왕의 측근세력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²⁵⁾

자신의 측근세력인 수품을 즉위 5년에 상대등에 임명했다는 것은 ‘올제로 하여금 국정을 총괄’하게 하는 것과 같은 과도 체제에서 벗어나 선덕왕이 독자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²⁶⁾ 즉위 초에 있었던 왕권에 대한 불안감이나 도전세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즉위 5년경에는 선덕왕이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자신의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을 상대등에 임명하고 친정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 순무의 정치적 의미나 자신의 측근 세력을 지방으로 보내 위무하게 했다는 점에서 당시 중앙정계는 선덕왕이 장악했던 것으로 여길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변화상은 구휼 활동에서도 보인다. 즉위하던 해에 소위 ‘鰥寡孤獨’으로 표현되는 소외된 백성들을 진휼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즉위 2년에는 신궁 제사 후 대사면과 함께 지방의 세금과 부역을 1년간 면제해주는 조치를 내렸다. 즉위 초에 있었던 이러한 조치는 자연재해와 직결되지 않는 구휼활동이었다. 이는 여왕 즉위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하고 민심 안정을 토대로 왕권의 안정을 바랐던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²⁷⁾ 구휼 활동은 그 뒤에도 계속 보이지만 자연재해와 연관되지 않는 구휼활동은 보이지 않아 구휼활동의 성격이 달

25) 김덕원, 2000 「김용춘의 생애와 활동」 『명지사론』 10·11 ; 2007 「신라중고정치사연구」, 경인문화사, pp.116~126 재수록.

26) 高慶錫, 1995 앞의 논문, p.266.

27) 鄭容淑, 1994 앞의 논문, p.248.

라졌음을 보여 준다.

선덕왕이 국정 운영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즉위 5년을 전후한 시점에 선덕왕이 여왕이라고 하는 조건을 극복하고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²⁸⁾ 선덕왕이 왕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통치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 계기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선덕왕 5년에 있었던 신라에 잠입한 백제 군을 옥문곡에서 격파했던 사건을 주목하기도 한다.²⁹⁾ 그러므로 선덕왕 즉위 5년과 6년 사이에 획선을 그어 시기를 구분하기도 한다.³⁰⁾

그런데 옥문곡의 승리를 정국 전환의 계기로 해석하게 되면 그 전에 이루어진 지방의 주현을 돌려 위무하게 한 일이나, 상대등 교체 등에서 나타나는 친정체제의 구축 등 일련의 사건이 해석되지 않는다. 옥문곡 전투의 승리가 선덕왕의 통치자로서의 능력을 부각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선덕왕의 국정 운영이 변화된 전기가 되는 사건은 그 이전 시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³¹⁾

이와 관련하여 선덕왕이 자신을 대신하여 용춘과 수품을 지방으로 보내기 바로 앞에 나타나는 4년 조 기사를 주목하고자 한다.

가) 4년 당나라가 사신을 보내 부절을 가지고 왕을 주국낙랑군공신라왕으로 책봉하여 아버지의 봉작을 잇게 하였다. 영묘사가 완성되었다. 겨울 10월에 이찬 수품과 용수를 보내 주현을 두루 돌려 위무하였다.³²⁾

28) 선덕여왕 통치기를 상대등 교체를 중심으로 삼분하여 5년에서 10년까지의 기간을 선덕왕 통치의 제Ⅱ기로 분류하였는데, 통치체제 전반에 걸친 변화는 선덕왕 6년에야 나타난다고 하면서 5년과 6년 사이에 획선을 그었다(鄭容淑, 1994 앞의 논문, p.246).

29) 鄭容淑, 1994 앞의 논문, pp.249~250.

30) 鄭容淑, 1994 앞의 논문, p.246.

31) 辛鍾遠, 1996 앞의 논문, p.66 ; 朴勇國, 2000 앞의 논문, p.266.

4년조 기사에서 이찬 수품과 용수를 보내 주현을 돌며 위무했다는 바로 앞에 선덕왕이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영묘사 낙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선덕왕이 당으로부터 책봉 받은 기록은 중국 사서인 『舊唐書』와³²⁾ 『冊府元龜』에도 보인다.³⁴⁾ 선덕왕 초기 기사를 보면 대당 조공 기사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즉위 원년 12월에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으며, 이듬해인 2년에도 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있다. 선덕왕이 즉위 초 대당 정책에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는데, ‘여왕’이라는 점 때문에 취약한 권력 기반을 국제적 인정을 받음으로써 타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덕왕의 노력이 즉위 4년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당의 책봉은 선덕왕의 왕위 계승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다. 더구나 선덕왕이 받은 봉호는 부왕의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이는 선덕왕이 국제사회에서 아버지인 진평왕의 후계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반대세력들도 여왕 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이다.³⁵⁾ 이러한 사실의 이면에는 선덕왕 4년까지 왕권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사정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³⁶⁾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당 책봉과 함께 기록된 영묘사 낙성이다. 두 사건은 월 기록이 별도로 있지 않아 영묘사 낙성은 당 책봉과 짝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낙성에는 성대한 의식이 수반되었을 것이다. 의미 있는 장소에서의 장엄한 의식은 권위와 왕권 확보에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영묘사 낙성은 선덕왕이 당의 책봉이 의미하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무대였던 것이다. 즉위 2년에 분황사가 인평으로의 개원과 짝

32)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 四年.

33) 『舊唐書』卷199, 新羅傳.

34) 『冊府元龜』卷964, 外臣 封冊.

35) 朴勇國, 2000 앞의 논문, p.271.

36) 辛鍾遠, 1996 앞의 논문, p.45.

을 이룬 것과 같이 영묘사 낙성 역시 당의 책봉과 짝을 이루어 선덕왕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가시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

영묘사는 낙성 기사 외에 선덕왕과 관련된 무대로 종종 등장하고 있다. 즉위 5년에 선덕왕이 백제군의 침입을 미리 알아내고 격파할 수 있었던 것도 영묘사 연못에서 우는 개구리 때문이었다.³⁷⁾ 이 승리는 선덕왕의 ‘여왕’으로서의 한계를 불식시킬 수 있었던 사건으로 선덕왕의 영험함과 신이함이 극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귀설화에서도 여왕을 사모해서 마음의 병이 난 지귀가 여왕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기다렸던 장소도 영묘사였다.³⁸⁾ 여왕을 만나지 못하고 불귀신이 된 지귀를 어루만지면서도 단호한 대처로 불길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모습은 선덕왕이 자애로우면서 왕으로서 위엄있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영묘사가 선덕왕의 위엄과 신이함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묘사가 선덕왕의 왕권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선덕왕은 영묘사 연못에서 우는 개구리 울음을 통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남자의 생식기는 여자의 생식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되니 이로써 쉽사리 잡을 줄 알았다’고 일갈하고 있다. 그간 ‘여왕’에 대한 편견에 대한 고단함과 함께 여왕이라고 해서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자신감을 표출했던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선덕왕은 유례없었던 ‘여왕’이라는 점으로 즉위초 정통성과 왕권이 위협받았지만, 영묘사 낙성 이후 왕권이 안정되고 국정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 책봉과 함께 영묘사 낙성이 선덕왕의 여왕 통치에 전환이 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37) 『三國遺事』卷1, 紀異1 善德王知幾三事.

38) 『大東韻府群玉』卷20, 心火繞塔.

Ⅲ. 영묘사의 묘당적 성격

영묘사가 조영될 당시 신라에는 대사찰인 황룡사가 있었다. 선덕왕대에 도 백좌강회를 여는 등 황룡사는 여전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선덕왕 즉위 2년에는 ‘분황사’를 낙성했다. ‘항기로 온 황제의 사찰’이라는 이름을 내세울 정도로 여왕의 치세를 내세운 기념적인 의미를 가진 여왕의 사찰이었다.

황룡사라는 국가적인 대사찰이 있고, 여왕의 치세를 기념하는 분황사가 있는데 왜 영묘사를 창건하였을까? 왕실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사찰건립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건립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영묘사 역시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황룡사와 분황사가 있음에도 영묘사를 창건했다는 것은 영묘사가 황룡사나 분황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사찰로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묘사 낙성 이후 선덕왕 통치에 전환이 있었던 것을 보면, 영묘사 창건을 통해 선덕왕이 이루고자 의도했던 정치적 목적은 달성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영묘사가 선덕왕의 정통성 확보나 왕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묘사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사찰 이름이다. 사찰의 이름이 ‘영묘’인 것이다. 영묘사는 문헌사료에는 靈廟, 靈妙로 표기되어 있다. 『삼국사기』에는 靈廟로만 되어 있는 반면 『삼국유사』에는 靈廟와 靈妙가 함께 보인다. 그 외에도 ‘영묘’는 다양한 금석문 자료에서 보이는데, 한자 표기가 차이가 있다. 경주지역에서 ‘영묘’라는 글자가 쓰여진 문자瓦搏이 출토되었는데 靈廟 ‘靈妙’ 舍妙로 표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북 김천지역에 소재했던 갈항사탑기에는 零妙寺로, 강원도 양양지역에 있었던 선림원종명에는 舍妙寺라는 표기가 보인다.³⁹⁾ 이들은 동일 사찰을 지칭하는 同音異字로 여겨지는데,⁴⁰⁾ 영묘사가 靈廟, 靈妙, 舍妙, 零妙로 다양

하게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선덕왕 창건 당시 쓰였던 글자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 창건 당시 이름은 영험하고 신묘하다는 뜻의 靈妙였지만 여왕이 죽은 후 그런 뜻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지고 기능이 변화되어 사당 역할을 하게 되면서 靈廟로 변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⁴¹⁾ 그렇지만 조선시대 문헌인 成俔의 『虛白堂詩集』에 실린 시문에 ‘靈妙寺’로 표기된 것 등을 참조하면 ‘靈妙’라는 표기가 오히려 후대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舊三國史』를 저본으로 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三國史記』에서는 일률적으로 靈廟로만 표기되어 있다는 점, 靈廟, 靈妙가 혼용되고 있는 『三國遺事』의 경우 기이편과 의해편에서는 모두 靈廟로 나타나고 흥법과 탑상편에만 靈妙로 표기되어 있는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선덕왕대 창건 당시 공식적인 표기는 靈廟일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한다.

사찰 이름이 ‘靈廟’라는 것은 심상치가 않다. 이는 영묘사가 ‘靈廟’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靈廟는 불교에서 부처님 생전의 역사적·傳記的 기념탑을 의미하는 ‘chaitya’를 의역한 말로 쓰이기도 한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을 의미하는 stupa와는 다른 석존 생전의 역사적 전기적 지역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⁴²⁾ 그렇지만 경주에 있는 영묘사가 부처님 관련 유적지에 있을 수 있는 ‘chaitya’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영묘’는 신령을 모신 묘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⁴³⁾ 이와 관련하여 靈은 죽은 사람의 精氣로서 조상 숭배와 관련되며, 廟는 돌아가신 조

39) 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 1992 『譯註韓國古代金石文』 3.

40) 邊善雄, 1973 「皇龍寺 9層塔誌의 研究」 『國會圖書館報』 10-10, p.55.

41) 정연식, 2009 「선덕여왕의 이미지 창조」 『韓國史研究』 147, pp.104~105.

42) 고유섭, 1993 「조선 탑파의 연구」 『고유섭전집1』, 通文館, p.21; 姜英卿, 1990 「新羅 善德王之 「知幾三事」에 대한 一考察」 『원우론총』 8, p.199.

43) 蔡尙植, 1984 앞의 논문, p.96.

상의 形容을 모신 곳으로 靈廟는 죽은 사람의 精氣를 신앙하여 그 형상을 모시는 것으로 귀신신앙과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해석이 참고 된다.⁴⁴⁾ 영묘를 신령을 모신 묘당이라는 의미로, 영묘사는 사원의 명칭으로 보아 조상 숭배와 관련을 가진 ‘조상의 신령을 모신 종묘 사원’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⁵⁾

영묘사의 종묘 사원으로서의 성격과 관련하여 중대 성전사원의 기능에 대한 연구성과가 주목된다. 『삼국사기』 직관지에는 중대 성전사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하나로 영묘사의 이름도 보인다. 그런데 중대 성전사원의 기능에 대해 왕실의 조상숭배를 위한 원당으로 이해하고 있다. 개인의 복을 빌기 위한 원찰로서 사원을 세우는 경우가 흔히 있었으므로 원당으로서 관련 인물에 대한 봉사기능을 수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원당으로서 기능은 왕실사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⁴⁶⁾ 나아가 중대 성전사원이 중고기 법흥왕의·선덕여왕의 원찰인 영흥사와 영묘사를 모범으로 창건되었을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⁴⁷⁾ 원당인 만큼 성전사원에는 왕의 진영이나 소상이 안치되고 절기마다 제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⁴⁸⁾ 중대 성전사원의 기능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영묘사가 ‘조상의 신령을 모신 사당’으로서 원당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해석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음 영묘사의 종묘 사원으로서의 성격과 관련하여 주목하고 싶은 것이

44) 廟는 설문에서, “尊先祖貌也 廟者貌也 所以彷彿先人之形容也”라고 하였고, 釋名에서도, “先祖形貌所在也”라고 하여, 廟는 돌아가신 조상의 형용을 모신 곳임을 알려 준다고 하였다(姜英卿, 2005 「고대 한국 무속의 역사적 전개」 『한국무속학』 10집, p.46).

45) 李泳鎬, 1993 앞의 논문, p.275 ; 辛鍾遠, 1996 앞의 논문, p.63.

46) 李泳鎬, 1983 앞의 논문, pp.102~103.

47) 박남수, 2012(a) 앞의 논문 ; 박남수, 2012(b) 「新羅眞殿寺院의 조영과 그 思想的背景」 『신라문화』 40, p.51.

48) 李泳鎬, 1993 앞의 논문, p.276.

영묘사의 입지이다. 영묘사의 입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흥륜사 위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현재 경주에는 고속도로 진입로 동편에 위치한 사정동 국당리에는 1970년대 이래 ‘천경림 흥륜사’라는 간판을 건 사찰이 운영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이곳을 사적 제15호로 지정하였는데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가 있었던 장소로 여긴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영묘사의 위치를 송화산 기슭 아래 서천변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⁴⁹⁾

그런데 문제는 사적 제15호에서 1976년 ‘靈廟之寺’라는 문자기와 수습을 시작으로, ‘靈廟’ ‘靈妙’ ‘舍妙’라는 문자 瓦塼이 계속하여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흥륜사’ 간판을 내건 사적 15호는 흥륜사지가 아니라 영묘사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⁵⁰⁾ 그 후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에서는 『신라문화』 20호를 흥륜사 특집호로 마련하였는데 흥륜사와 영묘사 위치 비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중에 문자 와전이나 기타 문헌자료를 통해 사적 15호는 영묘사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⁵¹⁾ 문자명 와전은 여러 사지에 동시에 출토되는 경우도 있어 와전 출토만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며 영묘사의 위치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⁵²⁾ 특히 절 주변이 ‘흥륜들’로 불려져 왔다는 점은 현재의 위치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게 한다며, 문무왕대 열병이 영묘사 앞에서

49) 홍사준, 1962 앞의 논문, pp.5~10.

50) 박홍국, 1980 앞의 논문, p.103; 김원주, 1983 앞의 논문, pp.3~5; 국립경주박물관, 1989 「국립경주박물관」(도록), p.42; 이강근, 1998 「경주문화재에 대한 재인식 -신라 최초의 절 흥륜사를 중심으로-」 『경주문화』 4호, 경주문화원; 박방룡, 1999 「성덕대왕신종의 내력」 『성덕대왕신종』, 국립경주박물관, p.110; 田中俊明, 1988 앞의 논문, pp.7~11.

51) 朴洪國, 2002 앞의 논문, p.228; 李根直, 2002 앞의 논문, p.95.

52) 諸鹿央雄, 1916 『新羅寺蹟考』, 경주인쇄소; 秦弘燮, 1975 『경주의 고적』, 열화당; 한국불교연구원, 1982 「흥륜사지」 『신라의 폐사』 1, 일지사; 金福順, 1996 「신증동국여지승람역주-불우~고적-」 『新羅文化』 13, p.241.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하여 영묘사의 위치를 서천변으로 추정하였다.⁵³⁾

영묘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른바 신라 전불7처가람에 대한 언급에서 나타나고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영묘사를 전불7처가람 가운데 한 곳으로 소개하면서 ‘沙川尾’라고 하여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⁵⁴⁾ 그러므로 영묘사의 위치는 ‘사천미’가 어디인지가 중요하다. ‘사천미’는 사천의 끝자락이라는 의미이다. 이 사천이라는 명칭은 『삼국유사』에 보인다. 원효가 남산에서 내려와 건넜다는 문천교를 설명하면서 ‘沙川’을 언급하였는데 속칭 牟川, 혹은 蚊川이라고 설명하였다.⁵⁵⁾ 사천은 모래가 많은 시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경주 시내를 둘러싼 하천인 서천, 북천, 남천 가운데 바닥이 거의 모래로만 이루어진 하천은 남천 뿐이다. 사천은 남천의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명칭으로 『삼국유사』에서 말했던 사천은 경주 시내 남쪽을 관통하고 있는 남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⁵⁶⁾ ‘사천미’라는 표현은 영묘사가 남천의 끝자락에 위치했다는 의미가 된다.

현재 ‘영묘’라는 명문와전이 출토되고 있는 사적 15호로 지정된 ‘천경림 흥륜사’ 장소는 남천의 끝자락에 해당한다. 사천을 남천으로 이해한다면 현재 사적 15호의 위치가 영묘사가 ‘사천미’에 있었다는 설명과 부합되는 것이다.⁵⁷⁾ 영묘사는 조선시대 중기까지 시문에 곧잘 등장하여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시문에서 영묘사 주변 환경으로 월성, 문수, 오룡 등이 언급되고 있다. 현재 사적 15호로 지정된 ‘천경림 흥륜사’의 위치가 시문에 묘사된 지리 환경에 부합되는 것이다.⁵⁸⁾ 현재 이곳에서 영묘사

53) 金福順, 2002 앞의 논문, p.10.

54) 『三國遺事』卷3, 興法3 阿道基羅.

55) “沙川俗云牟川又蚊川.”(『三國遺事』卷4, 義解5 元曉不羈)

56) 李起鳳, 2002 「中古기 新羅 王京에서 佛教의 公認과 都市의 變化」 『新羅文化』 20, p.271.

57) 尹善泰, 2002 앞의 논문, p.96.

명 와전들이 수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형상 시내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문헌자료에 보이는 주변 환경에 대한 묘사 등에서 영묘사의 위치를 현재 사적 15호로 지정된 ‘천경림 흥륜사’가 있는 장소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영묘사 입지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이 ‘오릉’이다. 현재 사적 15호를 영묘사지로 이해할 경우 남천을 사이에 두고 영묘사 건너편에 오릉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릉은 신라의 시조능역으로 전승되고 있는 장소이다. 오릉 가까이에는 건조물 등의 흔적이 발견된 일이 거의 없어 오릉은 문화적으로 배타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⁵⁹⁾ 오릉을 중심으로 반경 50m내에는 알영정 외에는 이렇다 할 유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릉의 남쪽에 담엄사터가 오릉에 가장 가까운 편이지만, 담엄사는 전불칠처가람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조성된 통일신라시대 사찰이다. 영묘사 창건 당시에 담엄사는 없었으며 오릉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영묘사가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⁶⁰⁾

국가적 시설이 들어설 곳은 성소로서 의미가 있는 곳을 주목하게 된다. 영묘사 역시 의미 있는 장소에 조성되었을 것이다. 영묘사가 신라 왕실의 중요 사당인 ‘영묘’의 기능을 가진 사찰로 조성되었다면 사찰의 위치 역시 영묘에 모셔진 대상을 고려해서 정해지지 않았을까 한다. 영묘사가 신라 시조능역으로 전승되고 있는 오릉과 인접해 있다는 것은 영묘사가 신라 왕실의 조상 신령을 모신 묘당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영묘사가 오릉과 관련을 가지고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58) 李根直, 2002 앞의 논문, p.17.

59) 姜仁求, 1989 『新羅五陵測量調查報告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21.

60) 姜仁求, 1989 앞의 보고서, p.22.

IV. 영묘사 창건과 왕권 안정

영묘사 창건 이후 선덕왕은 여왕이라는 핸디캡을 어느정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을 장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영묘사가 유례 없는 ‘여왕’이라는 선덕왕의 조건을 극복하는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영묘사가 묘당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찰이라는 점에서 영묘사에 모셔진 대상이 선덕왕이 여왕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제공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묘당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영묘사에 모셔진 대상은 누구였을까?

이에 대해 중대 왕실의 시조인 진지왕으로 비정하기도 하였다.⁶¹⁾ 혹은 조선시대 문헌에 묘사된 영묘사의 모습에 여성 초상화가 있었던 점을 통해 선덕왕의 추복소였던 것으로 해석하면서 창건자인 선덕왕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⁶²⁾ 그렇지만 신라에서는 중대 성전사원을 기점으로 국왕의 원찰이 확대 되는데 대체로 역대 국왕들이 생전에 창건 또는 지원한 사찰에 후대의 왕이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⁶³⁾ 영묘사의 경우도 선덕왕대 창건되었다는 점에서 선덕왕과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원찰이 후대 왕들에 의해 조성된다는 점이나, ‘향기로운 황제의 사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왕의 치세를 기념하는 분황사가 이미 건립되어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영묘사가 창건 당시 선덕왕의 원찰로 창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또한 영묘사는 창건 당시 이미 조상신령을 모신 묘당기능을 가진 ‘영묘’ 사찰로 조영되었다. 이는 그 대상이 창건자인 선덕왕이 아니라 선덕왕 이전 인물에서 찾아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영묘사 창건이 선덕왕의 치세에

61) 李泳鎬, 1993 앞의 논문, pp.275~277.

62) 박남수, 2012(b) 앞의 논문, p.80.

63) 박남수, 2012(b) 앞의 논문, pp.52~53.

전기가 되었던 것을 볼 때, 영묘사에 모셔진 대상은 선덕왕의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진지왕의 경우 선덕왕의 왕권에 기여 수 있는 상관관계를 찾기가 어렵다. 선덕왕 이전의 인물이면서 선덕왕에게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제공할 수 있었던 인물은 누구일까? 아버지인 진평왕일까?

영묘의 대상과 관련하여 영묘사 낙성 당시의 상황을 참조하고자 한다. 『삼국사기』에서 영묘사 낙성은 선덕왕 즉위 4년에 당에서의 선덕왕 책봉과 짝을 이루어 기록되었다. 당에서 의 책봉은 중국측 사서인 『신당서』에도 기록이 보인다. 『신당서』에는 ‘정관 9년에 사신을 보내어 선덕을 책봉하여 아버지의 봉작을 세습케 하였다’고 하였다.⁶⁴⁾ 정관 9년은 선덕왕 4년에 해당하므로 『삼국사기』의 기록과 시점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덕왕은 즉위 4년에 당으로부터 아버지 진평왕이 받았던 ‘낙랑군공신라왕’이라는 작호를 이어받았던 것이다. 선덕왕이 당으로부터 진평왕의 후계왕으로 정식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책봉기사 뒤에 나오는 내용이다. 『신당서』에는 책봉에 뒤이어 ‘나라 사람들이 성조황고(聖祖皇姑)라고 불렀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⁶⁵⁾ 선덕왕이 나라사람들로부터 ‘성조황고’라는 존호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측 기록인 『삼국사기』에도 보인다. 선덕왕 즉위조에 진평왕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없자 나라 사람들이 덕만을 왕으로 세웠다는 정황을 전하면서 ‘성조황고’의 칭호를 올렸다고 하였다.⁶⁶⁾ 『삼국사기』의 기록은 ‘성조황고’라는 존칭을 올린 시점이 국민들이 선덕왕을 왕으로 추대했던 그 시점으로 여겨지게 한다. 그러므로 『삼국사기』를 취신하여 선덕왕이 ‘성조황고’라는 존호는 즉위 무렵에 있었던 일로 보기도 한다.⁶⁷⁾

64) 『新唐書』 卷220, 新羅傳.

65) 『新唐書』 卷220, 新羅傳.

66)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5 善德王 卽位條.

67) 정연식, 2009 「선덕여왕과 성조(聖祖)의 탄생, 침성대」 『역사와 현실』 74 註35.

그러나 즉위조의 기사는 새로 즉위한 왕의 혈통이나 자질 등 왕위 계승의 배경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국인들이 ‘성조황고’라는 존호를 올렸다는 것 역시 반드시 즉위시점에 있었던 일로 기록된 것 보다는, 최초의 여왕인 선덕왕이 국인들의 추대로 즉위하였다는 것과 함께 ‘성조황고’라는 존호를 받을 정도로 국인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은 왕이라는 것을 설명한 포괄적인 서술이 아닐까 한다. 『신당서』 역시 여왕 즉위 초 신라에서 있었던 일을 책봉 소식 뒤에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성조황고’라는 존호를 받은 시점은 즉위시가 아니라 당 책봉이 있었던 즉위 4년 시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성조황고’라는 존호도 주목된다. 황고(皇姑)에서 ‘고(姑)’는 시어머니, 고모 등 여성을 통칭하고, ‘황’은 황제나 천자 등 왕 보다 격상된 의미이다. 향기로운 황제의 사찰이라는 의미인 분황사가, 뒤에 분왕사로 불리기도 한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당시 신라에서는 ‘왕’보다 ‘황’이라는 글자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황고는 여왕을 격을 높인 ‘여황제’와 같은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조’는 여황제에 대한 수식어로 성스러운 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성조황고’는 ‘성스러운 선조로부터 정통성을 가진 여황제’로 이해할 수 있다. 혹은 ‘聖스러운 祖先의 皇統을 이은 여성’으로 풀이하기도 한다.⁶⁸⁾

왕위 계승의 정통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반은 혈통이다. ‘성조황고’는 여왕이지만 선덕왕이 혈통 상으로 정통성을 가진 왕위 계승권자이며 아울러 그 혈통은 신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당의 책봉에서 의미하는 선덕왕 계위의 당위성을 ‘성조황고’라는 존호를 통해 다시 천명한 것이다. 선덕왕이 ‘성조’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의 적통자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선덕왕 이전 역대 왕에게 따로 존호를 올린 기록이 없는데 유일하게 올린 것은 여

68) 辛鍾遠, 1996 앞의 논문, p.45.

성으로서 최초로 왕위에 오는 선덕왕 역시 당시의 상황에서 신성한 권위를 강조할 필요가 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⁶⁹⁾ 그렇지만 이제 선덕왕은 여왕이지만 당 책봉으로 국제 사회로부터 진평왕의 후계왕으로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성스러운 선조로부터 혈통을 이어받은 여황제’로 정통성을 확인받은 것이다.

선덕왕이 국민들로부터 ‘성조황고’라는 존호를 받은 당 책봉이 있었던 시점은 영묘사 낙성과도 시기를 같이하고 있다. 이는 당 책봉, 성조황고 존호, 영묘사 낙성이 일련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성조황고’라는 존칭이 ‘성조’로부터 황통을 계승한 적통자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면, 같은 시점에 낙성이 기록된 영묘사의 영묘 기능은 바로 선덕왕이 신성한 혈통을 가진 적통자임을 인정해 주는 그 ‘성조’와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영묘사는 선덕왕의 존호에 수식되었던 ‘성조’를 모셨던 영묘가 아니었을까 한다.

그렇다면 영묘사에 모셔진 ‘성조’는 누구일까? 이에 대하여는 진평왕대 왕권 성장의 결과 聖骨이라는 독존적인 왕족 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⁷⁰⁾ 성골의 ‘성’이 불교적 신성 개념이라는 주장은 일찍부터 대두되었는데,⁷¹⁾ ‘聖’자의 의미를 찰리종으로 해석하여, 신라인들의 성골 관념을 보여주는 칭호로 보았다.⁷²⁾ 그러므로 ‘聖祖’를 불교적 관념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⁷³⁾

69) 鄭容淑, 1994 앞의 논문, p.241.

70) 이기백·이기동, 1982 『한국사강좌 고대편』, 일조각, p.186.

71) 丁仲煥, 1969 『新羅聖骨考』 『이홍직박사회갑기념 한국사학논총』, 신구문화사, pp.47~51; 文暲鉉, 1976 『新羅王族의 骨制』 『大丘史學』 11, p.6; 申東河, 1979 『新羅 骨品制의 形成過程』 『韓國史論』 5, 서울대학교, pp.40~42.

72) 辛鍾遠, 1996 앞의 논문, p.57.

73) 박남수, 2012(b) 앞의 논문, pp.67~68.

또는 성조황고를 ‘성조의 황고’로 이분하여 ‘강력한 통치력을 구사했던 위대한 진평왕의 딸 선덕’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⁷⁴⁾ 성조를 진평왕으로 본 것이다. 그렇지만 ‘진평왕’의 경우 우선 용어에서 맞지 않는다. 선덕왕을 수식했던 ‘성조’에서 祖는 조상이라는 의미로 가깝게는 할아버지까지 해당될 수 있는 용어이다. 용어상에서 아버지 진평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聖祖’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聖祖’가 어떠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실제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조’ 용례는 신라 금석문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송복사비’에는 ‘聖祖 元聖大王’라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성조를 원성대왕으로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경문왕에 대한 설명으로, 원성왕은 신라 하대 왕실의 중시조라고 할 수 있으며 경문왕의 직계 선조에 해당한다. ‘송복사비’에 표현된 성조는 경문왕의 직계 선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쌍계사 진감선사탑비’에 ‘성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효소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⁷⁵⁾ ‘진감선사탑비’에서 성조는 혈통상 직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왕실 계보상의 선조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금석문 사례는 ‘성조’가 ‘성스러운 조상’이라는 의미로 주로 조상을 수식한 용어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후대 문헌자료인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에서 ‘성조’라는

74) 李晶淑, 1999 앞의 논문, pp.226~227.

75) 金南允, 1992 『雙溪寺 眞鑑禪師塔碑 해석문』 『譯註韓國古代金石文』 3.

76) 대표적인 사례로 성종 10년 윤2월에 사직을 세우고 교서를 내리면서, ‘우리 聖祖로부터 여러 왕대를 거쳤지만 삼대 시대의 제전들을 갖추지 못했는데, 내가 왕위를 계승한 이후...’의 표현이 보이는데 여기서 성조는 태조 왕건을 의미한다. 또한 정종 7년에 고려 태조릉인 현릉(顯陵)을 참배하고 또한 선릉(宣陵)을 참배한 뒤 ‘우리 聖祖께서 3국을 통일하던 당시에 ...’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여기서 성조도 태조 왕건을 가

용어가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고려의 경우 성조는 대부분 고려 건국주인 태조 왕건을 지칭하고 있다.⁷⁶⁾ 조선의 경우에도 전시기에 걸쳐 대부분 성조는 태조 이성계를 의미했다.⁷⁷⁾ 다만 조선 후기에는 선조나 인조를 가리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선조나 인조는 조선 후기 왕실의 중시조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고려나 조선에서도 ‘성조’는 ‘성스러운 조상’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혈통이나 계보상의 선조, 특히 건국 시조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선덕왕에게 수식되었던 ‘성조’ 역시 ‘성스러운 조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성스러운 조상’에서도 주로 건국 시조나 중시조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선덕왕의 혈통의 신성성을 보장해주는 ‘성스러운 조상’ 역시 건국시조나 선덕왕에게 중시조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렇다면 ‘성조황고’라는 존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영묘사에서 모셨던 대상 역시 ‘성조’, 즉 신라의 건국시조나 선덕왕에게 중시조에 해당하는 인물의 묘당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

리킨다. 마지막 왕인 공양왕대에도 즉위년에 우왕과 창왕을 죽인 뒤 고려 태조를 모신 효사관에 가서 고하면서 축문에 ‘우리 聖祖가 천명을 받아 칼을 들고 일어 서니 가는 곳마다 못도적이 모두 평정되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도 성조는 태조 왕건을 지칭한다. 고려 초기부터 말기까지 聖祖는 고려를 창업한 시조인 태조 왕건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77) 태종 36년에 상왕인 정종에게 존호를 올리면서 ‘聖祖를 도와 나라를 여시고 적장을 높여서 성업을 지키시고...’, 또한 태종을 현릉에 장사지내면서 ‘우리 임금이 천명을 받게 알아 聖祖를 도와서 온 백성을 어루만져 안정시켜...’의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성조는 모두 태조 이성계를 지칭하고 있다. 그 뒤 선조 때까지는 성조는 모두 태조 이성계를 가리키고 있다. 인조 이후에는 태조 이성계 외에도 선조, 인조를 지칭할 때도 쓰기도 한다. 조선 말기인 고종은 경복궁을 중수한 뒤 근정전에서 축하를 받고 사면을 반포하면서 ‘聖祖가 큰 도움을 세우고 경복궁이라는 대궐에 거처하니...’라고 하여 태조 이성계를 聖祖로 표현하고 있어, 조선후기까지 썼음을 알 수 있다.

을까 한다.

현재 영묘사의 위치를 살펴보면 오릉과 인접해 있다. 이는 영묘사가 오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오릉이 신라 시조릉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묘사는 오릉의 주인공인 건국시조와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신라의 건국신화에는 혁거세를 건국시조로 하고 있다. 이는 신라의 건국시조로 여겨지는 혁거세가 영묘사에 모셔진 ‘성조’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혁거세만으로는 여왕인 선덕왕이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권력을 장악하게 된 배경을 해석하기는 어렵다. 선덕왕은 후계자 선정이나 즉위 과정에서 정통성이 위협을 받았다. 그러다가 당으로부터 아버지 진평왕의 후계자로서 인정받고, 국인으로부터 ‘성조’로부터의 신성한 혈통을 이어받은 후계자로서 내세워지면서 선덕왕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이는 영묘사에 모셔졌던 ‘성조’가 선덕왕에게 정통성을 제공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선덕왕이 정통성에서 위협을 받았던 것은 ‘여성’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선덕왕의 왕권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덕왕이 ‘여성’이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했다. ‘여왕’이지만 선덕왕이 가장 적통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이 ‘알영’이다. 알영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린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시조비로 그려져 있다. 그렇지만 신라의 건국신화에서는 알영의 비중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알영은 알영정에 나타난 용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독자적인 탄생담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건국 후에도 혁거세와 함께 육부를 순무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알영이 신라 건국 과정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⁷⁸⁾

78) 김선주, 2010 「신라의 알영 전승 의미와 시조묘」 『역사와 현실』 76.

79) 김선주, 2010 「신라 선도성모 전승의 역사적 의미」 『사학연구』 99.

또한 신라에는 선도성모가 건국시조를 낳았다고 하는 시조모 전승도 있는데 시조모는 혁거세 만이 아니라 알영도 낳은 것으로 여겨졌다.⁷⁹⁾ 이는 알영 역시 건국시조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준다.

뿐만 아니라 신라에서는 혁거세와 알영을 함께 ‘이성二聖’으로 지칭하고 있다. 두 사람을 ‘이성’으로 칭하는 용례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모두 보인다. ‘이성’이라는 지칭은 건국초기 기록부터 나타난다. 『삼국사기』에는 알영의 탄생과 성장, 납비 과정을 서술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두 사람을 ‘이성’이라 불렀다고 했다.⁸⁰⁾ 또한 혁거세왕대에 마한왕이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것을 꾸짖자 ‘이성이 일어난 뒤’라고 표현하였다. 신라에서 알영을 혁거세와 함께 ‘이성’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알영을 혁거세와 함께 ‘이성’으로 칭했다는 것은 ‘알영’도 혁거세와 함께 ‘聖’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이성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聖’은 바로 ‘성조’와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알영이 혁거세와 함께 二聖으로 불렸다는 것은 혁거세 뿐 아니라 알영도 ‘聖祖’로서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영묘사에 모셔진 것으로 여겨지는 신라의 시조인 ‘聖祖’에는 시조왕인 혁거세뿐 아니라 알영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한다. 특히 여왕인 선덕왕으로서는 오히려 알영을 부각시키는 것이 더 목적이 아니었을까 한다.

혁거세와 함께 알영 역시 신라의 건국시조인 ‘성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오릉’과 관련해서 이해할 때에도 괴리되지 않는다. 오릉은 시조릉으로 전승되고 있는 장소이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시조릉인 오릉에 시조 혁거세만

80) “五年春正月龍見於 闕英井 右脇誕生女兒老嫗見而異之收養之以井名名之及長有德容始祖聞之納以爲妃有賢行能內輔時人謂之二聖.”(『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赫居世居西干 5年條)

81) 『三國遺事』卷1, 紀異 新羅始祖赫居世王條.

82)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赫居世居西干 60年.

이 아니라 알영도 함께 피장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⁸¹⁾ 『삼국사기』에는 알영의 장지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혁거세의 죽음에 대한 징조로 ‘두 용’이 우물에 출현했다고 하고,⁸²⁾ 또한 남해왕 즉위 후 ‘이성이 나라를 버린 후’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⁸³⁾ 혁거세의 죽음에 알영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혁거세와 같은 장지를 쓴 것으로 남해, 유리, 파사 3명만을 기록하고 있다. 오릉이라는 숫자에 부합하려면 1명이 빠져 있는 셈인데 설명은 없지만 알영이 혁거세와 장지를 함께 한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혁거세만이 아니라 알영 역시 시조릉인 오릉을 능역으로 하고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오릉의 권역에 알영정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알영정은 알영의 탄생과 관련된 장소이다. 오릉은 가까운 거리에 건조물 등의 흔적이 발견된 일이 거의 없어 문화적으로 배타적인 권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⁸⁴⁾ 그 배타적인 오릉 경내에 알영의 탄생지인 알영정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알영이 오릉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⁸⁵⁾ 시조왕인 혁거세의 탄생과 관련된 장소인 나정은 오히려 남산 기슭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반해 알영의 탄생지인 알영정이 오릉 권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오릉의 정황은 알영이 혁거세와 함께 신라의 건국시조인 ‘聖祖’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선덕왕으로 계승되었다고 인정한 혈통의 신성성의 근원인 ‘성조’로 인식한 대상은 혁거세만이 아니라 알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오히려 여왕이라는 점이 문제시되었던 선덕왕으로서 혁거세보다 여성인 ‘알영’을 더 주목하지 않았을까 한다. 최초의 여왕으로 정통성에 위협을 받았던 선덕왕은 여성 시조인 알영을 부각시키면서, 그 후

83)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南解次次雄 元年.

84) 姜仁求, 1989 앞의 보고서, p.21.

85) 김선주, 2009 「신라의 알영 전승과 시조묘」 『역사와 현실』 72, pp.181~189.

계자로서 자신을 내세우면서 정통성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당의 책봉이 있었던 즉위 4년의 ‘성조황고’, 영묘사 창건은 충분히 계산되고 준비된 연출이었던 셈이다.

『삼국사기』에는 선덕왕 4년에 낙성되었다는 소식만을 짧게 소개하고 있을 뿐이지만, 『삼국유사』에는 영묘사 창건과 관련된 꽤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나) 양지스님의 조상과 향읍은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신라 선덕왕 때에 자취를 나타냈을 뿐이다. … 또 筆札을 잘하여 靈妙寺의 장륙삼존상과 천왕상과 전탑의 기와와 천왕사 탑 밑의 팔부신중과 법림사의 주불 삼존과 좌우 금강신 등이 모두 그가 만든 것이다. 영묘사와 법림사의 편액을 썼으며, 또 일찍이 벽돌을 조각하여 작은 탑 하나를 만들고, 아울러 3천불을 만들어 그 탑을 절 안에 모셔두고 예를 드렸다. 그가 영묘사의 장륙상을 만들 때 입정하여 三昧에서 빈 부처님을 모형으로 삼았는데 온 성안의 남자와 여자들이 진흙을 다투어 운반했었다. 그때 남녀들이 다음과 같이 풍요를 읊었다. … 지금도 시골 사람들이 방아를 찧을 때나 일할 때에 모두 이 노래를 부르니 대개 이때 시작되었던 것이다. 영묘사 장륙상을 처음 만들 때의 비용은 곡식 2만 3천 7백 섬이 들었다. -혹은 금색을 다시 칠할 때의租라고도 한다.⁸⁶⁾

위의 사료를 보면 또한 영묘사에는 장륙존상이 모셔진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장육존상은 크기가 1丈 6尺을 뜻하는, 즉 4.8m 정도라는 것이다. 수치상으로 정확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영묘사에 규모가 큰 불상을 모셨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서 장육존상은 국가적인 호국사찰인 황룡

86) 『三國遺事』卷3, 塔像4 靈廟寺丈六.

사에 모신 사례가 있다. 황룡사의 장륙존상은 신라에서 세 가지 국가적인 보물 중의 하나로 여겨졌는데, 최대 불상으로서 그 크기에서 위엄의 근거가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⁸⁷⁾ 크기만으로도 위엄을 주는 장육존상이 영묘사에도 만들어 모셨던 것이다.

특히 ‘장육존상’을 만들 때 양지는 ‘입정삼매’를 하였다고 하였으며, 성안의 남녀들이 동원되었다고 하여 장육존상 조성이 많은 공력이 필요한 쉽지 않은 대토목공사였음을 보여준다.⁸⁸⁾ 이와 같은 장육존상을 영묘사에 모셨다는 것은, 사찰의 규모가 적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영묘사지는 현재 부분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중창된 동서 회랑의 내곽 규모가 96.2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고자는 초창가람 역시 동일한 규모로 영묘사가 대규모의 가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⁸⁹⁾

최초의 여왕인 선덕왕은 ‘死者’ 숭배를 통하여 왕권의 신성함과 정통성의 권위를 새로 세우려 했던 것이다.⁹⁰⁾ 여기에서 선덕왕이 내세운 권력의 기반으로 삼은 死者는 ‘聖祖’였다. 선덕왕은 ‘성조황고’라는 존호를 통해 자신이 성스러운 시조로 부티의 황통을 이어 받은 적임자라는 것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선덕왕은 ‘성조’에 대한 추모와 숭배, 정통성의 계승을 상징하는 국가적 성소를 건립함으로 ‘성조’ 숭배에 영속성을 갖고자 하였다. 이에 시조릉인 오

87) 李基白, 1978「皇龍寺와 그 創建」『新羅時代 國家佛敎와 儒敎』, 한국연구원 ; 1986「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pp.77~78 재수록.

88) 양지의 활동기간을 7세기 전반 선덕왕대보다는 문무왕대에서 신문왕대에 걸친 7세기 후반기에 활약했던 인물이라는 견해도 있다(강우방, 1991「新良志論」『美術資料』 47, p.14). 또한 양지가 영묘사 불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기를 문무왕대일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한정호, 2010「신라 쌍탑가람의 출현과 신앙적 배경」『석당논총』 46, p.190).

89) 申昌秀, 2002「홍륜사의 발굴성과 검토」『新羅文化』 20, p.295.

90) 지배자의 권력과 사자 숭배와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이 참고 된다(김희상 역, 올라프 라더, 2004「사자와 권력」, 작가정신).

릉과 인접한 사천미에 ‘성조’의 영묘 기능을 담당할 영묘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창건한 것이었다.

선덕왕은 영묘사 창건을 통해 신라 국가 시조인 성조, 즉 혁거세 만이 아니라 여성 시조인 알영을 적극 부각시키면서, 성조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정통성을 적극 내세웠던 것이다. 실제 중국 유일의 여제인 측천무후 역시 ‘천수성도’와 같은 상징물과 더불어 성신황제의 가호를 필요로 했던 것은 선덕왕대 ‘성조’ 인식과 ‘영묘사’ 창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⁹¹⁾

영묘사가 선덕왕의 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창건 이후 선덕왕의 관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중고기에 조영된 사찰이 45개가 되지만 왕의 직접적인 행차 기록은 드물다. 선덕왕대 그 중 절반 이상인 28개가 창건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선덕왕의 직접 행차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영묘사가 유일하다. 그만큼 선덕왕에게 영묘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덕왕은 최초의 여왕으로서 즉위 초 왕권이 위협받았지만, ‘성조’, 특히 여성 시조인 알영을 적극 부각시킴으로 그 후계자로서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이상을 통하여 영묘사를 최초의 여왕인 선덕왕의 정통성과 권력 기반이라고 하는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Ⅱ 장에서는 영묘사 창건의 정치적 배경과 관련하여 여왕으로서 선덕왕 즉위의 불안정한 요소와 함께 선덕왕이 여왕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권을 장악해가는 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이에 선덕왕은 4년을 계기로 왕권의

91) 鄭容淑, 1994 앞의 논문, p.241.

정통성 회복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 있게 국정운영을 주도하였고, 실제로도 여근곡 백제군 침입 격퇴의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 직접적 계기로 주목한 것은 선덕왕 4년 당나라의 선덕왕 책봉과 그에 이어지는 영묘사 낙성이었다. 공교롭게도 선덕왕 초반기 국정 운영에 이 두 가지 사건은 선덕왕의 왕권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다. 영묘사 창건의 정치적 배경은 이처럼 신성한 왕권의 상징성 확보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Ⅲ장에서는 영묘사 낙성이 선덕왕 통치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영묘사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영묘라는 사찰 이름에 주목하였다. 靈廟가 조상의 묘당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영묘사 역시 신라 왕실 조상의 묘당이었을 가능성을 주목하였다. 영묘는 중대에는 성전사원의 하나로 보이는데, 성전사원이 ‘조상의 영혼을 모신 사당’으로서 원당기능을 가졌던 것으로 관련 인물에 대한 봉사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라는 점에서도 창건 당시에도 묘당으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묘사의 위치와 관련하여 사천미에 세워졌다는 영묘사는 현재 ‘영묘’라는 다양한 와전이 출토되고 있는 사적 16호로 지정된 장소로 추정하면서, 이는 영묘사가 남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오릉과의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했다.

Ⅳ장에서는 신라 왕실 조상의 영묘 기능을 가진 영묘사를 구체적으로는 건국시조와 관련된 묘당으로 이해했다. 특히 영묘사 낙성 시점에 ‘성조황국’로 칭해진다는 점에서, 이 영묘사는 선덕왕이 적통 후계자임을 내세운 ‘성조’와 관련된 묘당 기능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모신 ‘성조’는 신라의 국가시조이며, 혁거세 뿐 아니라 알영이 ‘이성’으로 칭해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영묘사의 모셔진 대상 역시 혁거세만이 아니라 알영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선덕왕은 여왕인 자신의 정치적 기반과 관련하여 ‘성조’ 중에서도 여성인 ‘알영’을 보다 부각시켰던 것으로 이해했다. 이를 위해 선덕왕은 시조릉으로 알려진 오릉과 가까운 사천미에 ‘성조’의 원당으로서의 영묘사를 창

건하고, 성조를 통해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왕권을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 이러한 선덕왕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선덕왕은 여왕이지만 건국시조로부터 혈통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왕으로 인식되면서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투고일 : 2013. 9. 9	심사개시일 : 2013. 9. 9	심사완료일 : 2013. 9. 20
------------------	--------------------	---------------------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史』, 『大東韻府群玉』, 『朝鮮王朝實錄』, 『高麗史』
『舊唐書』, 『新唐書』, 『冊府元龜』
- 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 1992 『譯註韓國古代金石文』 Ⅲ
姜仁求, 1989 『新羅五陵測量調查報告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이기백, 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李鍾旭, 1980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嶺南大出版部
올라프라더, 김희상역, 2004 『사자와 권력』, 작가정신
姜英卿, 1990 『新羅 善德王의 「知幾三事」에 대한 一考察』 『원우론총』 8
姜英卿, 2005 『고대 한국 무속의 역사적 전개』 『한국무속학』 10
高慶錫, 1995 『毗曇의 亂의 성격 문제』 『韓國古代史論叢』 7
강우방, 1991 『新良志論』 『美術資料』 47
고유섭, 1993 『조선 탐파의 연구』 『고유섭전집1』, 通文館
김덕원, 2000 『김용춘의 생애와 활동』 『명지사론』 10·11
金福順, 1996 『신증동국여지승람역주-불우~고적-』 『新羅文化』 13
金福順, 2002 『興輪寺와 七處伽藍』 『新羅文化』 20
김선주, 2010 『신라의 알영 전승 의미와 시조모』 『역사와 현실』 76
김선주, 2010 『신라 선도성모 전승의 역사적 의미』 『사학연구』 99
金瑛河, 1988 『新羅 中古期の 政治過程試論』 『泰東古典研究』 4
김원주, 1983 『사적 제15호 흥륜사지는 영묘사지의 잘못』 『穿古』 51
南東信, 1999 『元曉와 芬皇寺 關係의 史的 推移』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芬皇寺의 諸照明-』 20
박남수, 2012(a) 『眞殿寺院의 기원과 新羅 成典寺院의 성격』 『韓國思想史學』 41
박남수, 2012(b) 『新羅眞殿寺院의 조영과 그 思想的背景』 『신라문화』 40
박방룡, 1999 『성덕대왕신종의 내력』 『성덕대왕신종』, 국립경주박물관
朴勇國, 2000 『善德王代 初の 政治的 實狀』 『慶北史學』 23
박홍국, 1980 『경주지방에서 출토된 문자명과』 『전국대학생학술연구발표논문집』 5
박홍국, 2002 『瓦塼資料를 통한 靈廟寺址와 興輪寺址의 位置比定』 『新羅文化』 20

- 邊善雄, 1973 「皇龍寺 9層塔誌의 研究」 『國會圖書館報』 10-10
- 文暲鉉, 1976 「新羅王族의 骨制」 『大丘史學』 11
- 申東河, 1979 「新羅 骨品制의 形成過程」 『韓國史論』 5
- 辛鍾遠, 1987 「新羅五臺山事蹟과 聖德王의 卽位背景」 『崔永禧先生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탐구당
- 辛鍾遠, 1996 「三國遺事」 善德王知幾三事條의 몇가지 問題」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新羅와 狼山-』 17
- 申昌秀, 2002 「홍륜사의 발굴성과 검토」 『新羅文化』 20
- 尹善泰, 2000(a) 「新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韓國史研究』 108
- 尹善泰, 2000(b) 「新羅 中代의 成典寺院과 國家儀禮 -大·中·小祀의 祭場과 관련하여-」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新羅 金石文의 現況과 課題-』 23
- 이강근, 1998 「경주문화재에 대한 재인식-신라 최초의 절 홍륜사를 중심으로-」 『경주 문화』 4
- 李根直, 2002 「신라 홍륜사 위치관련 기사 검토」 『新羅文化』 20
- 李基白, 1962 「上大等考」 『歷史學報』 19
- 李基白, 1964 「新羅 執事部の 成立」 『震檀學報』 25·26·27
- 李基白, 1978 「皇龍寺와 그 創建」 『新羅時代 國家佛敎와 儒敎』, 한국연구원
- 李起鳳, 2002 「中古기 新羅 王京에서 佛敎의 公認과 都市의 變化」 『新羅文化』 20
- 李泳鎬, 1983 「新羅中代 王室寺院의 官寺의 機能」 『한국사연구』 43
- 李泳鎬, 1993 「新羅 成典寺院의 成立」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4
- 李晶淑, 1999 「眞平王 末期의 政局과 善德王의 즉위」 『백산학보』 52
- 李熙德, 1980 「三國史記에 나타난 天災地變記事의 性格」 『東方學志』 23·24
- 정연식, 2009 「선덕여왕의 이미지 창조」 『韓國史研究』 147
- 정연식, 2009 「선덕여왕과 성조(聖祖)의 탄생, 침성대」 『역사와 현실』 74
- 鄭容淑, 1994 「新羅 善德女王의 정국동향과 毗曇의 亂」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一潮閣
- 丁仲煥, 1977 「毗曇·廉宗亂의 原因考-新羅政治社會의 轉換期에 관한 一試考」 『東亞論叢』 14
- 丁仲煥, 1969 「新羅聖骨考」 『이흥직박사회갑기념 한국사학논총』, 신구문화사
- 申東河, 1979 「新羅 骨品制의 形成過程」 『韓國史論』 5, 서울대학교
- 朱甫喲, 1994 「毗曇의 亂과 善德王代 政治運營」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一潮閣

秦弘燮, 1975 『경주의 고적』, 열화당

秦弘燮, 1982 「홍문사지」 『신라의 폐사 1』, 일지사

蔡尙植, 1984 「新羅統一期の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釜山史學』 8

崔在錫, 1983 「新羅王室의 王位繼承」 『歷史學報』 98

한정호, 2010 「신라 쌍탑가람의 출현과 신앙적 배경」 『석당논총』 46

洪思俊, 1962 「新羅靈廟寺址의 推定」 『考古美術』 3-6호(通卷23)

黃尙周, 2005 「『三國史記』 記事와 寺址로 본 新羅 成典寺院의 數에 대한 疑問」 『新羅文化』 25

諸鹿央雄, 1916 『新羅寺蹟考』, 慶州印刷所

田中俊明, 1988 「慶州新羅廢寺考(1)」 『堺女子短期大學紀要』 23, 堺女子短期大學

濱田耕策, 1982 「新羅の寺院成典と皇龍寺の歴史」 『研究年報』 2

Abstract

Queen Seondeok of Silla and Yeongmyosa Temple

Kim, Sun-Joo

This paper describes the relationship between Queen Seondeok, the first female ruler of Korean history, and Yeongmyosa in terms of the political aspects of her legitimacy and power base. Because of the fact that Queen Seondeok was a female ruler, the process of her succession to the throne was not smooth, and also her legitimacy was threatened in the early years after her accession, so that the throne was unstable. However, some changes arose after the 4th year of her reign in that she took over political sovereignty, built a direct governing system, and so on. This paper focuses on Yeongmyosa as the stimulus for these changes.

Yeongmyosa means “a shrine where ancestor spirits are worshipped.” The name represents one of the sanctuaries which are assumed to be shrines that contain the function of ancestor worship in the mid-Silla period. Also, by the fact that the temple is adjacent to the Five Royal Tombs, it can be assumed that Yeongmyosa functioned as “the shrine of the royal ancestors of Silla.” To put it concretely, this temple is understood to be a shrine related to the founders of Silla dynasty, not only assumed to include Bak Hyeokgeose, the founding king of Silla, but also his queen Aryeong. Especially, it is interpreted that Queen Seondeok as the first female ruler gave particular prominence to Aryeong, the founding queen of Silla, in relation to her political base.

It is my understanding that Queen Seondeok tried to gain sovereign power by establishing Yeongmyosa near the Five Royal Tombs, known to contain the tombs of the founders of Silla, to play the role of a shrine that worships “the sacred ancestors”; she then emphasized her legitimacy as a female ruler through worshipping the sacred ancestors, and especially the female ancestor Aryeong. This study makes it possible to understand the foundation of authority of Queen Seondeok, the first female ruler in Korean history. Further, this article can provide a stepping stone for developing approaches from various viewpoints in respect to worshipping the founders of Silla dynasty.

Key words : King Seondeok, Queen, Yeongmyosa Temple, Aryeong(founding Queen of Silla), Five Royal Tombs